

뛰는 금리...월세 넘어선 가계 이자부담

지난해 가구당 이자비용 13만원...실제 주거비 10만2천원 초월 전년비 각각 31%·8.6% 급증...고물가 겹쳐 서민가구 '삼중고'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에 가구 부담 이자비용이 월세 지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비용이 월세지출을 넘어선 건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확대 등으로 인해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주거비 지출 증가 폭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1인 이상)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 7천원으로 전년(9만 8719원)보다 3만 1288원(31.7%) 올랐다.

가구별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 2019년 8.5% 상승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어 지난 2022년 15.3%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지난해(31.7% ↑)는 이보다도 2배 이상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 2019년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가구의 월세 등 실제 주거비 지출이 전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금리 기조에 따라 가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9년만에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실제 주거비는 가구가 거주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실제 주거비를 집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이 낮았던 지난 2014년까지 실제 주거비보다 가구 이자비용이 높았지만, 지난 2015년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한 전세매물 부족 현상 및 1대1 기준금리 등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제 주거비 지출이 이자비용을 추월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주거비 지출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장기화 기조로 인해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면서 9년만에 다시 실제 주거비 지출을 앞섰게 됐다.

지난해 실제 주거비는 11만 1307원으로 전년(10만 2447원)보다 8860원(8.6%) 늘어 지난 2016년(22.62% ↑)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인한 불안감 및 고금리의 영향으로 월세 가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월세를 비롯한 실제 주거비와 이자비용이 폭등하면서 가계 여유 자금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월세 가구의 흑자율(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은 20.0%로 지난 2019년 1분기(17.3%)에 이어 4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자가 불어나면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게 될 시 경제체계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동안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도농상생 공동사업' 업무협약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와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은 4일 농협전남본부(본부장 김상수), 서울원에농협(조합장 유희관)과 '도농상생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도농상생 공동사업은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농·축협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협약내용은 ▲도·농 농협협동조합의 고유 역할 수행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농업·

농촌의 가치 제고 및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농축협 균형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 간 상호이해증진, 친목도모 등 공동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종택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시·농촌 간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잡힐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협 광주본부 12일 '금요 직거래 장터' 개장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오는 12일 농협광주본부 주차장에서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식을 갖고 매주 금요일 우수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는 금요직거래장터 개장을 맞아 개장식 당일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물러판 돌리기, 농산물 구입 시 고추모종 증정, 소풍백 제공, 인절미 시식, 농산물 할인 판매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미니토마토, 가지, 한우 등 농협자체 합인과 정부할인 등을 적용해 최고 45%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현호 본부장은 "고물가 시대를 맞아 도시 소비자는 우수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농업인은 적정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회원사 임단협 대응전략 설명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최호원 회장)는 지난 3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내외 복합경제 위기와 불확실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회원사의 합리적인 임금·단체협약 체결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교섭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 방향 ▲임금체제 개편 동향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업 대응전략을 안내했다.

강사로 나선 양근원 경총 경제조사본부 팀장은 2024년은 전년보다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2년 연

속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과거 임단협 주요 쟁점 사항이 고용안정, 임금인상이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내용으로 변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가 회원사들의 합리적인 임금·단체협약 체결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해 국내 외식업 시장 규모 100조원 돌파

코로나 이전 99조원 넘어서

지난해 한국 외식업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9% 증가한 100조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9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글로벌 시장조사회사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소비자 외식 시장 조사 결과와 전망을 4일 발표했다.

한국 외식업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외식업이 성장했다기보다 외식 메뉴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유로모니터는 풀이했다.

지난해 한국 외식업 거래량은 3.6% 늘었으나 증가 폭은 글로벌 외식업(7.8%)의 절반 수준이다.

또 2020년부터 3년간 국내 외식업 연평균 거래량 증가율은 1%대로 코로나 발생 전 3개년(5%)보다 낮다.

지난해 국내 레스토랑 시장은 11% 성장했다.

특히 패밀리를 레스토랑 체인 전문점은 성장률이 30%에 이르렀다.

명륜진사갈비, 애슐리와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를 내세운 뷔페형 외식 전문점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국내 버거 패스트푸드 시장은 4조1500억 원 규모다. 거래량은 5.3% 늘었는데 전체 시장은 10.5% 성장한 점을 미루보면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보다 비교적 단가가 높은 버거를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로모니터는 한국 버거 시장이 2028년 5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카페 시장은 규모와 매장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 주춤한 모습이다.

저가 커피 브랜드 성장에 힘입어 2021년과 2022년에는 매장 수와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동인 상권 내 경쟁 심화로 매장당 거래량과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졌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7월 '2024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20-22일 참가신청 및 예심자료 제출을 거쳐, 오는 6월13-14일 예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광전본부는 예심 통과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7일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예선대회를 개최한다. 지역예선대회 입상자들은 8월 9일 한국은행 본부 주관으로 전국결선대회를 치르게

된다. 예심은 서면 방식(보고서 제출)이며, 지역예선 및 전국결선은 대면 방식(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국내 대학(학부) 재학생 4명이 1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jang@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742.00 (+35.03) |
| ↑ 코스닥 | 882.90 (+2.94) |
| ↓ 금리(국고채 3년) | 3.338 (-0.003) |
| ↓ 환율(USD) | 1347.10 (-1.80) |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분주택 개관 본격 분양

39개동 2722 가구 대규모 단지 16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



롯데건설은 5일 광주서구 금호동 일대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 전분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총 2722 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전용면적은 84~233㎡로 다양하다.

단지는 3곳으로 나뉘며 ▲1BL(929가구) ▲2-1BL(915가구) ▲2-2BL(928가구)로 조성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오는 4월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발표는 1BL 4월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청약은 3개 블록 모두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부부 동시청약도 가능하다. 다만 여러 곳에 청약이 당첨됐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 청약만 유효하며 발표일이 늦은 단지 청약은 자동 소멸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차별화된 고급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내 위치한 '중앙공원 1지구'는 9개 민간공원(10개 지구)의 사업지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중앙공원 1지구는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

으로 구성되며 도심형 캠퍼지, 정원박람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호수백사장 등의 시설도 구축된다.

주거 편의성도 우수한 편이다. 인근의 광주월드컵경기장과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이 조성돼 있으며, 광주 중심 상권인 상무지구와의 거리도 멀지 않다. 또 1BL 기준으로는 화정남초, 성진초, 효광중, 차평중, 광덕중, 광덕고 등 통학이 가능하며, 2BL 인근에는 화계초, 윤리초, 광주중, 윤리중, 풍암고 등 우수한 학교를 품고 있다.

롯데건설은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를 적용할 계획으로 주방 욕실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유럽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꾸며진다.

무엇보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돼, 큰 장점이 있는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입주민은 중앙공원의 전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급 사우나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대수도 가구당 약 2대를 자랑한다. 총 주차대수로 5358대로 한 가구당 약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전세 주차면 가운데 1960대를 대형 세단, SUV 등의 차량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확장형 형태로 계획했다. 또 레저용품이나 계절용품 보관할 수 있는 현관 앞 세대창고도 제공한다. 놀이터 역시 유럽산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분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동로 154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스팀 살균 기능 탑재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출시

흡소핑 등 라이브 방송 본격 판매

삼성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한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를 본격 판매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4일 밝혔다.〈사진〉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스팀 출시일인 3일 삼성닷컴, G마켓, 11번가, CJ홈쇼핑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흡소핑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 확대에 나선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청소기 한 대로 먼지 흡입은 물론 물걸레 청소와 자동 세척, 스팀 살균까지 해주는 로봇청소기로, 국내 최초로 탑재된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과 고도화된 AI 기능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물걸레를 1차로 고온의 스팀과 물로 자동 세척한 뒤 2차로 100도 '스팀 살균'을 통해 물걸레의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을 99.99% 없애준다. 이어 55도의 '열풍 건조'로 물걸레를 말려 냄새와 위생 걱정도 덜어준다.

물걸레는 1분에 170회 회전하며 바닥 오염과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특히 청소 중 바닥 오염 구역을 인식하면 알아서 청정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스팀으로 물걸레 고온 세척 후 대위생 물걸레로 오염 구역을 한 번 더 집중 청소한다.

또 170만개의 사물 데이터를 사용한 AI 심층신



경망(DNN) 모델을 기반으로 전면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다. 얇은 휴대전화 케이블이나 매트도 인식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 등 총 5개의 센서로 바닥 환경을 감지하는 'AI 바닥 인식' 기능으로 마루바닥과 카펫을 구분해 맞춤 청소한다. 마루바닥은 물걸레로

청소하고, 카펫은 높이에 따라 물걸레를 분리할지 또는 들어 올려 청소할지를 판단해 카펫이 젖거나 오염되지 않게 해준다.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에 맞춰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정정기 증정, 카드 할인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